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소리 주보 ▶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음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어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있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입당송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창세 14,18-20

화답송 시편 110(109),1.2.3.4(4L-C)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2독서 1코린 11,23-26

부속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대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11L-17

영성체송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벧사이다와 오병이어의 기적



벧사이다 유적지

갈릴래아 호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유대인 마을이 크게 세 군데 있었는데, 카파르나움과 코라진 그리고 벧사이다입니다. 이 가운데 벧사이다는 베드로, 안드레아, 필립보의 고향으로서(요한 1,44) 그 지명 뜻은 ‘어부의 동네’ ‘사냥꾼의 동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그수르’ 땅에 해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외가가 있던 곳이지요.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 임금이던 시절 셋째 아들로 태어나는데(2사무 3,3), 그의 어머니가 그수르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였습니다. 당시 그수르가 이스라엘의 봉신 국가여서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 듯합니다. 압살롬은 친누이 타마르가 이복 형 암논에게 욕을 당하자 형을 죽이는데, 이때 도망간 곳이 그수르입니다(13,37).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끝내 아버지를 거슬러 반역하다가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지요(18,15).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이 벧사이다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지명 뜻이 ‘어부의 동네’이듯 배가 드나드는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필립보 모두 어부 출신이지요. 다만 벧사이다는 이스라엘의 다른 성지들에 비해 상당히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벧사이다 유적지가 갈릴래아 호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각 변동을 겪으며 내륙으로 바뀐 걸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셨다는 기적의 장소도 바로 벧사이다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는 성당이 갈릴래아 호수 북서쪽 ‘타브가’라는 곳에 따로 있지만, 루카 9,10에 따르면 벧사이다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듯이(탈출 16장), 예수님께서도 벧사이다에서 빵과 물고기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탓에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이 돌지만,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지요.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자녀를 보며 파종할 씨앗으로 배고픔을 달랠지, 다음 농사를 기약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도 상황이 비슷하여, 주린 배를 부여잡고 씨를 뿌린 이들이 수확하며 기뻐한다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126,5-6).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늘 측은지심입니다(마태 14,14; 마르 1,41 등). 여기서도 예수님은 일상화된 배고픔에 시달리는 백성을 가엾이 여기시어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만민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의 빵과 음료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며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



##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 「교회헌장」 제2장

「교회헌장」 제2장은 “하느님의 백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교회 안에는 성경과 교부학의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전례 개혁과 교회 일치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교의신학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와 정교회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교회론 분야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과 ‘하느님의 백성’ 개념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관련 서적이 많이 출간되었고, 그런 흐름의 영향으로 비오 12세 교황은 1943년 회칙 「그리스도 신비체」(*Mystici Corporis Christi*)를 반포하였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론과 20세기의 새로운 교회론을 모두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론이 처음으로 교도권에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반종교개혁 시기 벨라르미노(1542~1621)의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의 편집자인 트롬프는 20년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의 로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숙고는 ‘하느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보다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론의 핵심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교계적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하

느님의 백성’은 교회론의 중심 개념으로 교회의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공의회가 개최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비해서 아직 낮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신자 전체를 포함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출처 - L'Osservatore Romano 2021.09.07자

「교회헌장」의 제2장 ‘하느님의 백성’은 초안에 없었던 것이었으나, 공의회 교부들은 제2회기에서 ‘교계 제도’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백성’을 다루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교계 제도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 존재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이 교계 제도보다 우선입니다. 교계 제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지만, 그 직무는 봉사 차원에 속한 것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전망 안에서 유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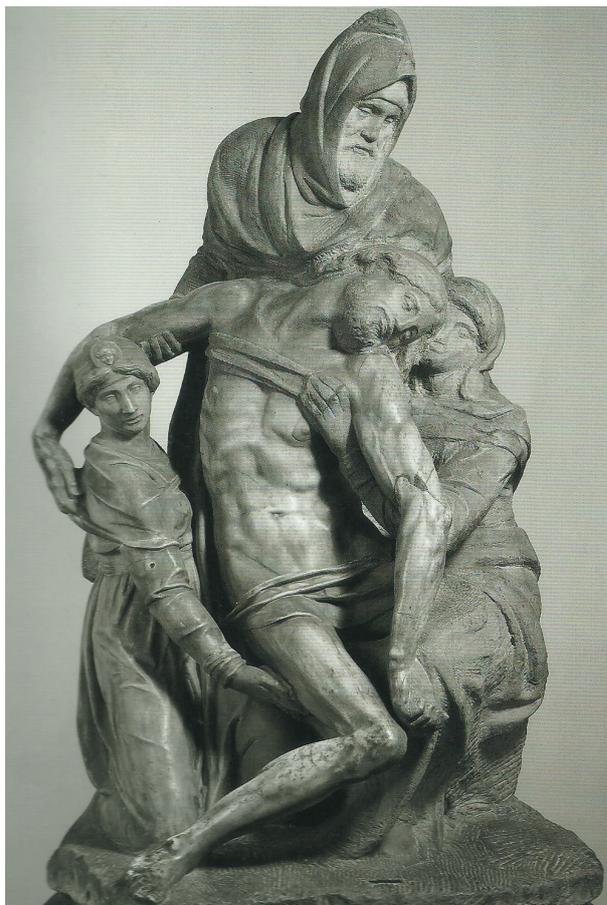
‘하느님의 백성’을 다루는 제2장에서 눈여겨 볼 것은, 제1장 ‘교회의 신비’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행위의 유일한 주체로 등장하지만, 제2장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원 역사 안에서 교회도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공동체로 표현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

## 무언의 고통을 조각한 거장 미켈란젤로

“취향을 타락시키고 조화롭고 세련된 고전주의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되는 위험하고도 불결한 인물!” 이 혹평을 들은 사람은 놀랍게도 서양미술사 최고라 인정받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1475~1564)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는 기준에 없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표현으로 동시대에는 비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활동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은 과학적 시선과 이성적 휴머니즘에 기초한 고전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르네상스 정신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이후 수백 년간 고상하고 차분한 고전주의가 이어지는데,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강렬한 표현을 갈구한 프랑스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과거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과 흑」의 저자 스탕달(1783~1842) 역시 예술가의 ‘고질적 우울함’(melancholy)의 전형을 미켈란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회화, 조각, 건축 분야에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업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과 ‘궁극적 사랑’을 찾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회화도 조각도 영혼을 달랠 수는 없다. 영혼은 우리를 안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린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있다.” 이 고백에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를 통해 이미 20대 청년기에 완벽한 인체 해부학적 표현과 조형성 그리고 극적 감정을 드러내는 기술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세 점의 피에타를 더 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50년이 지나 만든, 원래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설치되었던 〈피에타〉입니다.

여기엔 예수님과 성모님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맨 뒤 머리에 두건을 쓴 나이 많은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안고, 우측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머리가 기대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마리아 막달레나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70대 거장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완숙미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1475~1564),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피에타〉, 1547~1555년, 카라라 대리석, 높이 226cm, 피렌체 두오모 미술관

를 기대했다면, 표현이 너무 거칠어 당혹스러운 지경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들은 군더더기를 제거한 ‘가장 본질적인 표현’을 추구하기에, 무르익을수록 오히려 작품이 단순하고 거칠어지곤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니코데모를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연민과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손수 부축하며 그분의 고통과 함께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은 S자 형태로 땅에 빨려 들어가려는 듯하여 육중한 무게감을 전해줍니다. ‘생명 잃음’을 강조하듯 상반신과 힘이 늘어진 두 팔은 과장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리는 상대적으로 앙상하고 짧으며, 두 눈을 꼭 감은 그분의 머리는 더욱 거친 성모님의 얼굴과 맞닿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에는 천상의 비밀인 부활과 ‘일치’가 숨겨 있습니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7월, 8월 (대침묵 피정)**

주제	일시	강사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7/4(금) 16시 ~ 6(주일) 13시	김성우 이사악 신부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	8/22(금) 16시 ~ 24(주일) 13시	이승엽 미카엘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수) 10:30 목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와 사제단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청년센터 프로그램 - 청년 피정 바오로딸 Hope Stay**

한 달에 한 번,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일시 6/27(금), 7/11(금) 20시~21:30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7/4(금) 20시~21:30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대상 만 15세~45세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청년센터 프로그램 - 노틀담 수녀회와 함께하는 예술**

“평안하냐?” (마태 28,9)  
내용 내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음악과 움직임을 통한 평화의 시간  
일시 7/1(화) 20시~21:30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만 18~45세 (선착순 15명,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의정부교구청 홍보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디자인 및 일반사무 [계약직]  
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25(월) ~ 2027년 1/8(목)  
접수 7/4(금)까지, 이메일 jubo@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청 청소년사목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가정사목부 업무 및 청소년사목부 업무 등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1(금) ~ 2026년 12/31(목)  
접수 7/13(주일)까지, 이메일 youth@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문의 031-850-1456 청소년사목국

DIOCESE OF Uijeongbu



**미사 · 피정 ▶▶**

**2025년 꽃동네 젊은이 '비움' 피정**

일시: 7/12(토) 13시 ~ 13(주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주제: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30)  
대상: 고등학교 2학년 ~ 만 39세 젊은이  
회비: 5만원 (1인실-1박2일) / 사전 예약 접수  
문의: 010-5571-2516 형제회  
010-9894-1973 자매회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추차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0/25(토)~28(화)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2025년 하반기의 순례, 제주 산들순례 피정**

내용: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장소: 제주 면형의 집  
참조: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문의: 064-732-4702

**성체성혈 대축일 대피정**

일시: 6/23(월) 13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 회비: 3천원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임승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추기경님 외 사제단  
주최: 서울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문의: 02-773-3030

**ICPE <우리 삶의 참부모> 부모 피정**

날짜: 7/19(토)~20(주일), 심조이 바르바라 (인천)  
문의: 010-8724-4787 ICPE카톡플친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7/19(토) 11시 ~ 20(주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8만원 / 문의: 010-5490-5345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1박 3식)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6/24 이상기 회장, 7/1 이상윤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엄마와 딸(미혼) 피정: 7/5(토)~6(주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7/11(금)~13(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6/26(목)~29(주일), 7/17(목)~20(주일)  
성경완독: 7/25(금)~8/2(토), 8/15(금)~23(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010-9715-1203 카타리나의 집 (개인 자체취사)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6/2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예수 성심의 사랑의 불꽃 - 성체성사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6/23(월) 13:4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정대영 모이세 신부 (광주대교구)  
내용: 강의와 안수  
문의: 010-8917-0090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 (서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법원리 성당 반주자 모집**

활동: 매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접수: 이메일 jorina0429@uca.or.kr  
문의: 010-4708-0759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성가,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내용: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대상: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60세 이하 신자  
접수: 6/30(월)까지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일시: 7/7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세인트에프렘양상블 단원 모집**

대상: 성음악에 관심있는 55세 미만 신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연습: 매주(화) 20시, 원당 성당  
문의: 010-5446-7383

**덕계동 성당 교중성가대 지휘자 모집**

활동: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가톨릭 신자로 성가대 지휘 경험이 있는 분  
전공자, 전례음악의 이해가 있는 분  
(양주시 또는 의정부시 등 인근 거주자 환영)  
서류: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가톨릭음악관련활동),  
교적증명서  
문의: 031-857-1695 덕계동 성당  
※ 소정의 수고료 지급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 (가드, 간호사)  
접수: 6/28(금)까지  
이메일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안내 · 기타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금)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2025년 생명수호 일러스트 공모전

가톨릭 생명윤리에 맞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수호를 주제로 그린 순수 창작 일러스트  
접수: 7/16(수)~31(목)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사무국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www.forlife.or.kr 참조

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멕시코 성지순례 - 9박10일

세계 3대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포함  
그리스도 레지오 신부님과 동행  
일시: 11/27(목)~12/5(금)  
문의: 02-732-4578

이태리 대히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10/17(금) 일본 나가사키 (4일)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이탈리아 (11일, 525만원, 아시아나직항)  
11/9(주일) 히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12(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을 찾아서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연길, 용정, 도문 (5일, 15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9(토) 히년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9/15(월) 프랑스 파리, 리지유, 루르드 (12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축성 祝聖의 서예가  
신부 4인의 계주 개인전

gallery 1898 1 전시관

석하 정성훈 파비아노 신부  
미사  
2025. 6. 20금 - 6. 29일

덕인 도현우 안토니오 신부  
수양  
2025. 7. 4금 - 7. 13일

다묵 한만옥 토마스 신부  
天地創造  
천지 창조  
2025. 7. 18금 - 7. 27일

솯음 용하진 실바노 신부  
만남  
2025. 8. 8금 - 8. 17일

## 실체 변화 (Transsubstantiatio)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본래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오늘은 성체성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실체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사 중에 바쳐진 빵과 포도주는 '축성 기원 기도'와 '성찬 제정 축성문'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먼저, 사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빵과 포도주에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찬 제정 축성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재현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는 ...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이로써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축성된 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된다는 뜻으로 '실체 변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훗날 알렉산데르 3세 교황(1159~1181 재위)이 되는 롤란도 반디넬리(R. Bandinelli)입니다. 그는 1140~1142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상징주의와 사실주의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징주의란 빵과 포도주를 단순한 표지로 보려는 입장이고, 사실주의는 빵과 포도주의 물질적 요소조차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체 변화'는 이 두 입장의 극단을 배제하면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밝힌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빵과 포도주의 외적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 곧 빵과 포도주의 본성은 그리스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적인 권능에 의해 빵이 몸으로, 포도주가 피로 실체 변화될 때, 그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제대의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다"(DS 802).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신비는 트렌토 공의회(1545~1563)에서도 확인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과 더불어 그분의 몸과 피가, 곧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분께서 성체성사 안에 표지나 외형으로, 또는 효력으로도만 계신다고 주장하는 자는 파문될 것이다"(DS 1651). 여기서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라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체와 성혈 안에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선언한 표현입니다. 트렌토 공의회가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열린 공의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찬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개별 종파마다 성찬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건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실체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종교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하기에, 미사가 끝난 후에도 남은 성체를 감실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현시, 성체강복, 성체조배 같은 성체 흠숭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실체 변화의 신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정성스럽게 자주 영성체할 것을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본당공지**

▣ 손희송 베네딕도 교구장님 행주 본당 사목방문  
일 시: 7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  
교구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본당 사목방문을 위하여 교구장님께서 행주 성당을 7월 8일 화요일에 방문하십니다. 방문 시간은 오후 6시이나 본당 신자들의 환영식은 오후 7시 30분에 하오니 시간이 되신는 교우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6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6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7월 봉성체  
일 시: 7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남성 레지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레지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이은혁(마태오) 010-2284-6759

**우리들의 정성 (5월 26일 - 6월 01일)**

교 무 금 3건 630,000원  
주 일 헌 금 1,017,000원

- 복음 말씀 -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7월 성시간  
일 시: 7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6월 22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06월 29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고백주(안토니오), 허경옥(나 도로테아)	